

“치료제·백신은 코로나 막는 창과 방패...이용률은 저조”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 1.9% 불과 고령층 먹는 치료제 처방률 30% 이하 “중증화율과 치명률 더 높아질 수밖에”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식 자문기구는 낮은 접종률과 처방률이 사망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

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치료제와 백신이라는 창과 방패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면역력이라는 방패는 제때 보강해주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최근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아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 지표인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8일 0시 기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9%에 불과하다.

반면 유행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비중인 ‘중증화율’은 최근 5주 만에 0.12%에서 0.19%로 증가했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인 ‘치명률’도 0.06%에서 0.09%로 상승해 각각 50% 수준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이 시기는 다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할 시기”라며 개량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총 5가지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18세 이상 성인은 모두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 처방률이 여전히 저조한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충분히 보급됐지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처

방률은 아직 3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전국의 의료기관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주시고, 환자는 약을 꼭 끝까지 다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팩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는 중증화율이 43%, 라게브리올을 복용한 환자는 40% 감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 약을 쓰고 안 쓰고에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라며 “코로나 퇴치의 두 가지 무기인 창과 방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오는 9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4119곳 점검...방역 미흡시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국 4119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와 방역취약농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3건 발생하고, 발생 시기도 작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다. 중수본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오리·종계 농장과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매추리·토종닭 농장을 우선순위로 다음 달 9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북 진천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과거 발생했거나 방역 위반 실적이 있는 취약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 사항을 철저히 보완할 예정이다.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방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일제 점검



료가 부과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살처분 보상금 삭감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밀검사와 취

약농장 방역점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가금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단위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가을이 내려앉은 내산저수지

단풍이 물들고 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0월 30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내산저수지 인근 산기슭에

광주 군사격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표적지·들판 일부 타거나 그을려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58분께 광주 광

산구 지정동 한 군사격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32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표적지와 들판 일부가 타거나 그을

렸으나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 당국은 헬기 1대, 진화차량 2대와 대원 11명을 투입해 불을 꺼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